

동농 이해조 선생 선양 문학세미나

최원식 교수 “우리 지성사의 축을 바꾸는 계기”

이해조문학회(회장 홍을표)는 지난 22일 오후2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이 낳은 민족의 선각자 동농 이해조 선생 선양 문학세미나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최원식교수가 “누가 신소설 최고의 작가인가- 동농 이해조의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대진대학교 국문학과 장운수 교수와 포천중학교 이은영 국어교사가 토론에 나섰다.

또 대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성렬 교수가 “시대를 앞선 예인(藝人), 이해조”라는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김찬기 교수와 포천문인협회 김창호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앞선 기념식에서 홍을표 이해조문학회장은 “포천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3개요소는 대진테크노파크와 반월아트홀, 이해조문학관”이라고 전제한 뒤 “근대적 선각자이자 이고장 출신인 동농 이해조 선생은 문학, 언론, 교육활동을 통해 국민상징의 민족적 각성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분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포천이 낳은 대표적인 문인이자 계몽가이며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동농 이해조 선생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16만 포천시민에서 동농 이해조 선생의 애국계몽사상을 되새기며 작품활동에서 문화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100년전의 우리사회의 계몽가로 활동했던 동농 이해조 선생 선양 문학세미나를 계기로 포천시가 전국제일의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후손대표(종손)는 “신복면 신령리에서 인평대군의 후손으로 살았던 집안이 6.25전쟁으로 피난을 가면서 책 등 유물을 집마당에 묻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보니 마당이 파헤쳐지고 유물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고 밝히고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 최원식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고향 포천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포천이 낳은 민족의 선각자 동농 이해조 선생 선양 문학세미나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해조문학회가 개최하는 오늘 세미나는 우리문화사와 우리지성사의 축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계몽주의자는 애국계몽 사상가와 친일개화론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인직은 친일개화론자에 속하고 이해조는 애국계몽 사상가”라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이해조문학의 궤적은 신소설의 전진과 붕괴, 그 전

체상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였으니 이해조 신소설과 이광수 이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는 문학사적 위치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지한 발제와 토론, 방청객 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포천시민들과 함께 동농 이해조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

본지는 갈수록 인명경시 풍조 등 정신적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대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의 아름답고 질서 있는 정신상태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선비정신'을 연재하고자 한다. 필자는 포천지역사회에서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통해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었고 경기도교육위원으로서 포천교육발전에도 이바지한 바 있으며 각종 글을 통해 시대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이효중 포천한시사 대표다. 편집자주

인간의 마땅한 도리 실천



이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선비란 어원적으로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선비의 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세기 말엽 고구려의 재상 을바소(乙巴素)는 출세의 도리를 명백히 하여 선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삼국사회가 발전하면서 태학 및 국학의 설립으로 유교이념의 교육과 점문지식인으로서의 선비 활동은 뚜렷한 궤적을 남겼다. 태학의 문장기자와 외교의 큰 역할을 한 강수(強首), 이두를 지은 실총(實聰), 당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친 최치원(崔致遠) 등에서 우리는 선비의 올바른 태도와 본분을 엿볼 수 있다.

고려때에는 교육제도가 정비되고 선비들의 공직활동도 확대되었으며 선비의 양성도 더욱 활성화 되었다. 특히 고려말 안향과 백이정 등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색이념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학풍과 학통이 형성되었다. 이어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아은 길재는 학문이나 의리중에서 선비의 모범으로 존송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성리학을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으로 정립함으로써 선비들이 마침내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는 선비상은 이 시기 선비들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끊임없는 학문연구와 수련으로 자질을 갖춘 선비가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선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비는 사회의 양심이자 지성이며 인격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이념적 지도자이자 지성인으로 책임을 감당해 왔다. 전통의 선비상은 현실적인 욕구를 넘어 보다 높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여 왔다.

조선시대 아동교육 교재였던 동몽선승(童蒙先聖)의 첫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과 땅이 만물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는 오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값이 높은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왜 높은 값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름 즉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한다. 일 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평생을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판단에 가치관이 기 존역할을 하게 된다. 돈을 따르느냐, 의를 따르느냐, 사랑을 따르느냐, 돈을 택한 사람은 물질에 더 가치관을 둔 것이고 사랑을 취한 사람은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둔 것이고 의리를 따르는 사람은 의리에 더 가치를 둔 것이다.

선비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되고 오직의(義正義)의 잣대에 의한 값을 매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의경제(重義輕利)란 말이 있다. 정의(正義)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라는 뜻이다. 정의와 재물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정의를 택해야 한다. 견위치명(見危致命)이란 말도 있다.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진다는 말이다. 국가의 위기 또는 정의의 위기를 당한면 목숨을 던진다는 말이다.

조선왕조가 망국의 막을 내릴 때 당시의 선비 송병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인 충청도 학덕에서 임금을 매국노를 규탄하는 격렬한 내용의 상소를 했다.

“나라는 비록 망하더라도 의가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민족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한때 국가는 멸망하더라도 민족

이 살아남아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왕과 조정 대신들의 대오각성(大悟覺醒)과 전 국민의 결기를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유서 중에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살아 있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는다면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선비의 후예이다. 우리 모두 마땅히 선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선비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점이 있다. 새 것을 좋아하고 기이함을 숭상하며 우리 것을 업신여기고 남의 것을 배우기에 급급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라에서도 국사교육을 소홀히 여겨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국사교육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에서 더부살이 하더니 그나마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조상에 대한 역사도 캄캄하여 누가 몰으면 아예 입도 벌이지 못하고 단편만 피우다가 외국역사에 대해 말하게 되면 신바람이 나서 바다건너 멀고먼 불모지까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고 말하듯 소상하게 설명하며 그칠 줄 모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폐인가?

우리나라 역사학회 학자, 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건의로 당국에서 역사교육을 재검토하겠다는 시사가 있었다. 만사지탄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역사도 알고 우리 민족정신을 선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시리즈로 “한국 선비정신”이라는 제하의 한말의 사학자 강효석(姜孝錫)이 체결되자 항일인 충청도 학덕에서 임금을 매국노를 규탄하는 격렬한 내용의 상소를 했다.

“나라는 비록 망하더라도 의가 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민족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한때 국가는 멸망하더라도 민족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식 홈페이지 오픈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한 곳에



사진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식 홈페이지(www.minsok.or.kr) 인터넷 접속 화면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ok.or.kr)가 마련됐다.

홈페이지 주소는 '민속'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 알파벳화해(minsok) 만들었으며 ▶축제개요 (축제 목적과 주제, 상징, 역사) ▶축제안내 (행사개요, 행사장 안내, 전야제 및 경축공연, 축제 연계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 각각에 대한 행사일정과 심사계획, 시상종류 및 내역, 참가팀 소개 ▶권역별 포천관광안내(산정호수, 일동온천, 신복온천, 운악산, 국립수목원 관광권) ▶열린마당 (공지사랑, 자유계시관,

하는 이번 민속예술축제에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서 각 1팀씩 모두 21개 팀이 출전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현재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팀을 선발하기 위한 각 시도별 지역예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년도 우수작품인 ▶갈곡 들소리(전남)를 비롯 ▶포천메나리(포천) ▶광명농악(경기) ▶불모산 영산제(경남) ▶강강술래(전남) 등은 비경쟁 시연부문에 초청됐다.

포천시는 축제 참가인원만 3천명에 달하며 관중은 연인원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막 하루 전인 10월 1일에는 자리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속 예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 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포천문화사랑’

여름호 발간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최근 포천문화사랑 여름호(통권 제66)를 발행해 문화원 회원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천문화사랑 여름호에는 제언은 단으로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시대와 문화유산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제언논란을 비롯해 이근영 대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땅이름 이야기,이중용 이신경정신과의원의 건강칼



포천문화사랑 여름호 표지

럼, 이석구 포천문화사랑 편집장의 인물스케치 등이 수록돼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抱川藝術’

제5호 발간

(사)한국예총 포천지부(지부장 김진동)는 최근 포천예술 제5호를 발간해 시민과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천예술 제5호는 포천예총 2004년도 행사화보와 포천예술 지상갤러리, 제언, 특별기고, 예술칼럼, 이색예술소개, 시,수필,공포 등 문학산책, 포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총회 소식, 몸예총은 관공예절, 포천예총 소속단체 행사 이모저모, 각 협회 회원발단 등이 수록돼 있다.

김진동 지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며 정서가 가득한 포천예술지가 여러분의 손에서 사랑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抱川藝術 제5호 표지

“21세기는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산업이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대로 문화와 예술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포천예술 제5호 발간을 계기로 위대한 포천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주역으로,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서는 한국예총 포천지부로 눈부시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5)

저술가 성해응(成海應)

성해응(成海應, 1760년 영조 36년 ~ 1839년 헌종 5년)은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인데 소홀한 초가팔리 적안촌에서 출생, 성장하였으며 가신면 금현리에 묘가 있다.(요즈음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오리지날 포천분서이다)

자(字)는 ‘용여(龍女) 호(號)는 ‘연경재(硯耕齋) 남의 자나호를 보아도 쉽게 인물됨을 알 수 있어 재미있다. 어려서부터 율곡전서를 보고 흠모하여 율곡선생을 평생에 거울로 삼았다. 정조 7년 진사시, 1788년 규장각 검서관, 내각에 근무하면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명응 등 북학파와 교류하였다. 정조 14년 왕

명으로 ‘춘추좌씨전’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였고, 순조 1년 ‘통예인인’, ‘금정찰방’을 지냈으며, ‘음성현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순조15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서구님과 함께 순조25년 ‘존주휘편’을 펴내었다.

한학과 송학의 결합으로 박문약예함을 중심으로 삼았다. 인간에게는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이 가장 근본적이라 하여 이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경학’에 치중하여 ‘예기(禮記)’와 ‘시경(詩經)’에 관한 저술이 많다. 우리나라의 ‘전승과지리’ 중국 역대 왕실의 세계 및 유민(世系遺民), ‘조선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풍속과 법제’, ‘경제’ 등 다방면의 저술을 남겼다. 실학 전성기의 인물로 조선 후기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계속될 때 경학의 이념적인 골레에서 벗어나 박학적이고 고증학적인 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씨에도 능하며 유필(遺筆)이 ‘근묵(謹墨)’에 전하여 저서로는 ‘연경재 점집(硯耕齋全集)’,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주한잡사고(周漢雜事考)’, ‘동국명신기(東國名臣記)’ 등 다양하다. 남의 인물됨은 여러문헌에 남아있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사직 후, 아들의 임지인 목천과 왕방산 아래의 고향 마을을 오가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또 현임 시절에는 ‘어제(御製)’를 간행하기 위한 작업에도 참여하였다.(순조 13년 1813년:정조어제) 음성현감시절에는 선정을 베풀어 그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순조시 학문의 시류인 의리만을 신봉하고 정이(程利) 형제와 주희(朱熹)만을 숭상하는 당시의 실태를 비판하는 ‘박문약례(博文約禮)’함을 중심삼는 바는 고증학의 비판적 입장에 있던 홍석주(洪碩周)와 일대 논변을 펼치기도 하였다.

우리는 성해응님의 학자다운 면모와 저술가이자 학자로서의 위대한 성애를 살펴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없이 정승자리에만 있었으면 위대한 인물로 치부한다. 의리도 지조도 모두 버리고 높은 벼슬자리만 탐하는 자를 어찌 참 선비라 하겠는가? 우리는 참 포천의 선비였던 성해응님의 생애와 저서를 통해 선비정신과 학문의 길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綠樹陰濃盛夏節(녹수음농성하절)

- 田園作物育成期 (전원작물육성기) 전원에 작물이 육성하는 시기니
- 今年登豐晝夜思 (금년등풍주야사) 금년에도 풍년 이르기까 밤낮으로 생각하니
- 彈柳鶯啼呈麗態 (탄류앵제경려태) 느린진 버들이 피고리 우는 모양 예쁘게보이니네
- 喬松鶴舞羅衣姿 (교송학무로야자) 큰소나무에 춤추는 학이 저태가 자못 빛나네
- 碧蘿削去 織通運 (벽로삭거조통운) 푸른덩굴을 깎아 버리고 겨우 통하는 길이며
- 修竹能長可作籬 (수죽능장가작리) 대로 묶어서 놓히 길게 잘 만든 울타리
- 綠樹陰濃中夏節 (녹수음농중하절) 푸른나무 짙은 그늘 하절에 한우를 방목하면
- 韓牛放牧 眼隨 (한우방목역근수) 송이기가 밭 뒤를따를 때 따른다.

楊基成 龍淵書院 院長

초대 詩 이 무렵

- 이 무렵 떠난 한살보다 청회색빛 하늘이 더 좋아
- 그 따가운 태양빛 외면하면 산들거리는 가네리 가지 눈은 아른 거리지
- 어느 새 개울문턱에는 노오란 얼룩들이 무리지어 번지고 이젠 가디라다 지친 초록 이파리들이 고개를 든다
- 왜 이제서야 내 눈에 들어 오는지 그동안 어릴 보았길래 도랑치고 싶었던 불, 바람 마주한다는것은 용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걸까
- 다만 이 시절조차 시간따라 흘러 가겠지
- 그 안일함 속으로 숨고 싶었나

김경자 마흔문화회 회원